

04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이 동 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I. 머리말
- II. 영산강유역 권역구분과 분포현황
- III. 입지와 군집상 특징
- IV. 지석묘의 형식과 출토유물
- V. 맺음말

영산강유역권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

이 동 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인 지식묘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찍이 지식묘에 대한 조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식묘 연구는 각 지역별 연구, 특정 지식묘에 대한 연구,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개별 유물이나 부장품습 연구, 지식묘의 기능과 장제, 위계화나 사회집단의 성격 연구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축적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지식묘가 어떻게 전파되었고,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호남지역 지식묘 조사는 1927년에 나주 노동리와 고흥 운대리가 최초로 조사되었고, 1960년대에는 국립박물관에 의해 고창 상갑리를 비롯해 순천, 곡성, 영암, 강진에 있는 지식묘들이 정식 발굴조사되었다. 70년대의 영산강 4개 댐을 비롯해 80년대에 아산댐과 보성강유역의 동북댐, 주암댐, 90년대에는 전북 동부지역인 금강 상류의 용담댐, 2000년대에는 장흥 탐진댐 등 주로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내 지식묘들이 대규모로 발굴조사되었다. 2008년 이후에는 국가산업단지 공장부지 건설로 여수반도에 집중되어 대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재까지 영산강유역권에는 대규모 발굴조사는 아니지만 각종 건설사업으로 지식묘 발굴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영산강유역권 지식묘 연구는 주로 호남·전남지역 지식묘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이영문 2002, 2009; 조진선 2004; 平郡達哉 2004; 황재훈 2006; 이동희 2012). 이외에 지역·권역별 연구(선재명 2001; 이영문 2004; 김진환 2012; 최성훈 2015), 특징적인 지식묘 형식에 대한 연구(김선기 1997; 유태용 2007; 김석현 2015; 강진표 2016), 지식묘 출토유물(이영문 1997; 조진선 1999)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호남지역 지식묘 연구는 매우 활발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보성강유역이나 남해안지역에 비해 영산강유역 지식묘 연구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영산강유역은 지식묘의 밀집 분포지역으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로 확인되는 구조와 형식이 다양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출토유물이 빈약하여 유적의 시기나 구체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식묘의 구조와 문화를 밝힐 수 있는 발굴조사 자료가 축적되었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실시된 지표조사를 통해 지식묘의 분포현황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지표조사 자료와 발굴조사 자료를 통해 지식묘의 분포양상, 형식과 구조적인 측면, 타지역에 비해 수량은 부족하지만 출토된 유물을 검토하여 영산강유역권 지식묘의 특징과 지역성을 살피고자 한다.

Ⅱ. 영산강유역 권역구분과 분포현황

1. 영산강유역의 권역구분

우리나라 서남부에 위치한 영산강은 담양군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유입하는 강으로 극락강, 지식강, 황룡강, 고막원천, 함평천 등의 지류를 비롯해 1,345개의 소지류들이 있다. 영산강유역은 지리적으로 동쪽에서 서남향으로 뻗은 소백산맥의 한 줄기가 보성강과 탐진강유역이 경계를 이루고, 노령산맥으로 인해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영산강유역권은 자연·지리적 환경에 따라 4개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 상류지역

상류지역은 행정구역상 장성군, 담양군, 광주광역시, 화순군 일부에 해당하며, 대부분 산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하천은 황룡강, 극락강, 지식천이 합류하면서 영산강 본류를 이룬다. 황룡강유역은 노령산맥에 의해 전북 정읍과 경계를 이루지만 고갯길인 갈재를 통해 문화교류가 가능하다. 극락강유역인 담양군은 용추에서 순창 북흥면으로 연결되며, 담양 금성면과 순창 금과면, 담양 무정면에서 곡성 옥과면으로 비교적 낮은 구릉성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 쉽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런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섬진강의 지식묘문화와도 연결되고 있다. 지식천의 상류인 화순군은 순천 주암으로 통하고, 이양면에서 보성과 장흥 장평으로 연결되어 보성강유역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이다. 상류지역은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전라북도 정읍, 섬진강 중상류, 보성강유역과 문화적인 교류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중·하류지역

중·하류지역은 행정구역상 나주시와 영암군, 함평군 북동부 일부에 해당한다. 주요 하천은 문평천, 고막원천, 함평천, 만봉천, 삼포천, 영암천 등이 합류하면서 영산강 본류를 이룬다. 영산강유역의 핵심지역으로 산지도 있지만 저평한 구릉과 평지가 발달해 있어 개방적인 지형이다. 전남 서해연안 지역과 연결되고, 바다를 통해 외부지역과도 연결되는 곳이다.

3) 서해연안지역

서해연안지역은 영산강유역을 기준으로 서북부지역과 서부지역, 서부도서지역으로 구분가능하다.

서북부지역인 고창과 영광은 지형상 같은 분지에 있으며, 노령산맥에 의해 영산강유역과는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고창지역에 1,700여기의 지석묘가 밀집되어 있고, 전남 전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부지역은 행정구역상 함평군 서부, 무안군, 목포시에 해당한다. 노령산맥의 끝자락과 영산강 하류에 의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북부지역을 거쳐 영산강유역으로 진입하는 길목이다. 서부도서지역은 신안군에 해당하며, 연안항로를 이용해 영산강유역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야하는 길목에 해당한다.

4) 서해남부지역

서해남부지역은 해남군에 해당하며, 북쪽은 영암호와 소백산맥에 의해 영암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서해와 남해를 공유한 곳으로 북쪽으로는 영산강유역, 동쪽으로는 남해안지역과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개방된 해상교통의 요지이다. 영산강유역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 거치는 지역으로 서쪽에는 진도군과 장흥군, 동쪽은 진도군이 자리한다.

2. 분포현황

영산강유역권에서 조사된 지석묘는 전남의 고대묘제(이영문·조근우 1996)에서 1,063개군 7,928기가 보고되었고, 이후 각 시군별 문화유적분포조사를 통해 1,348개군 8,904기로 등록(문화재GIS 인트라넷시스템)되어 있다. 최근 영산강유역의 지석묘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조사를 통해 1,585개군 9,637기가 분포¹⁾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表 1>. 이는 나주 풍산리 도래지석묘군(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20)과 같이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기도 하며, 영암 산호리 지석묘군(목포대학교박물관 1993)이나 함평 덕림리 백양 지석묘군(대한문화재연구원, 2014)처럼 현재는 상석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지석묘로 밝혀지는 것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지석묘 분포는 고창과 화순, 나주·영암, 해남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최대밀집지 중 하나인 고창군에서 서해안변을 따라 점차 분포수가 적어진다. 그리고 교류의 요지에 있는 해남군에서 다시 밀집분포를 이루고 있다. 영산강유역에는 중·하류지역인 나주·영암 전역에 분포하고, 화순군을 제외한 상류로 갈수록 400여기 이하로 그 분포수가 적어진다. 이러한 분포권은 지석묘의 전파와 이동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권에서 현재까지 시·발굴조사된 지석묘는 188개군이 조사되었지만 상석만 확인되거나 자연석으로 판별된 경우를 제외하면 124개군 1,057기이다<表 2>. 또한 유적 내에서 상석만 확인되는 188기를 제외하면 869기이다.

1) 분포현황은 당시 사람들의 영역권과 생활권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분포권을 확인하고자 문헌조사(최몽룡 1975; 문화재관리국 1977, 1986; 이외 지표·발굴조사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조사된 지석묘의 총 기수를 정리한 것이다.

表 1. 권역별 지식묘 분포현황(나주문화재연구소 2015~2017 참고)

연번	지역	권역	지표조사		시·발굴조사		비고
			유적 수	총 기수	유적 수	총 기수	
1	담양	상류	94	263	12	36	
2	장성		106	287	15	47	
3	광주		78	383	17	85	
4	화순		126	1,201	31	152	섬진강제외
5	나주	중·하류	193	1,364	35	276	
6	영암		162	1,152	20	180	
7	함평		62	330	4	54	함평 북서부
8	고창	서해연안	231	1,780	18	114	
9	영광		150	534	12	45	
10	함평		103	439	8	15	함평 서부지역
11	무안		103	512	7	94	
12	목포		4	21	1	14	
13	신안		56	174	3	65	
14	해남	남부	117	1,197	5	12	
합계			1,585	9,637	188	1,189	

表 2. 영산강유역권 지식묘 발굴조사현황

연번	권역	유적명	발굴기수				입지	주요구조	배치	주요유물	참고
			상석+매장	매장	상석+묘역, 지식	상석만					
1	상류지역	장성 덕재리 남바위	2		1	2	계곡평지	개석(2)	열상		문화재 1976
2		장성 덕재리 원동	1	4	3	3	평지?	기반(2), 위석(1), 석관(4)	열상		문화재 1976
3		장성 쌍웅리	1		1		산기슭	기반(1)	열상		문화재 1976
4		장성 학성리 학동	1		1		고갯마루	기반(1), 개석(1)	열상		전대박 1995
5		장성 용흥리 태암 나군	3				구릉정상	위석(1), 기반(2)	열상		동대박 2003
6		장성 용흥리 태암 라			1		구릉정상	기반(1)	단독		동대박 2003
7		장성 덕산리 조산			1		산기슭	기반(1)	단독		목대박 2006
8		장성 오월리 오현			2		계곡평지	기반(2)	연접묘역		호문연 2010
9		장성 삼태리	1				구릉정상	개석?(1)	단독	구순각목	호문연 2016
10		담양 문학리			1		구릉정상	기반(1)	단독		김원용 1961
11		담양 산성리	1	3			평지?	기반(1), 석곽(2)	열상		전대박 1976
12		담양 태목리 태암	1		1		퇴적평지	기반(2)	열상		호문연 2003
13		담양 덕성리 영월		1			고갯마루	석곽(1)	단독	석검	동지연 2014
14		광주 충효동 성안	7				계곡평지	기반(7)	열상		전대박 1979
15		광주 풍암동 풍암			1		구릉사면	개석(1)	단독		전대박 1999
16		광주 금호동 망원			1		구릉정상	개석(1)	단독		전대박 1999
17		광주 매월동 동산 가군	4	8			고갯마루	위석(4), 기반(1) 석곽(3), 석관(2)	열상,군상	석검	전대박 2001
18		광주 매월동 동산 나군	3	7	2		구릉정상	위석(2), 기반(2)	열상,군상		전대박 2001
19		광주 신창동 매길	1	4			구릉사면	기반(1), 석관(3)	단독		호문연 2004
20		광주 용두동 개동 나군				9	구릉사면	상석	열상		전문연 2006

연 번	권 역	유적명	발굴기수				입지	주요구조	배치	주요유물	참고
			상석+ 매장	매장	상석+ 묘역, 지석	상석 판					
21		광주 장덕동 성터	1	1	1		구릉정상	위석(1)	단독		호문연 2008
22		광주 노대동 구암	3	3	3	3	계곡평지	기반(2), 개석(3) 석곽(1), 석관(2)	열상		전문연 2010
23		광주 덕림동 올림		4	1		구릉정상	기반(1), 석곽(2), 석관(2)	열상		호문연 2018
24		광주 덕림동 덕림	3	12			구릉정상	기반(3), 석곽(9), 석관(1)	열상, 군상	이단경축	호문연 2018
25		광주 덕림동 쌍구실들	1	1			구릉정상	기반(1), 석곽(1)	T자		호문연 2018
26		광주 덕림동 수성			2		구릉사면	기반(2)	각 단독		호문연 2018
27		화순 대초리 조지 다군	5			2	계곡평지	개석(2)	열상		전대박 1976
28		화순 대초리 대초 나군	2			1	계곡평지	기반(1), 개석(1)	열상		전대박 1976
29		화순 만연리			3	2	구릉정상	기반(1)	열상?		전대박 1993
30		화순 윤월리 운포 다군	5	1	1		고갯마루	개석(2), 위석(4), 석곽(1)	열상		전대박2002
31		화순 이십곡리	4			3	산기슭	개석(1), 위석(3)	열상		전대박 2002
32		화순 대신리 지동	7	17		14	계곡평지	탁자(2), 위석(8), 개석(3) 석곽(3), 석관(3)	열상		목대박 2002
33		화순 효산리·대신리	10	5	24	28	산기슭	탁자(3), 기반(14)	열상, 군상	석검	목대박 2005 동지연 2006 2012, 2016
34		화순 다리지 월정 나군	6	3			산기슭	개석(5), 위석(1), 석곽(2)	열상, 군상		전대박 2003
35		화순 서태리 태곡 가군	1	1		1	계곡평지	기반(1), 석곽(1)	열상		동지연 2009
36		화순 서태리 태곡 나			1		산기슭	기반(1)	단독		동지연 2009
37		화순 효산리 모산 1		3			산기슭	개석?(1), 석관(2)	ㄱ자		동지연 2017
38		화순 대리 주암 나			1		구릉사면	기반(1)	단독		동지연 2016
39		화순 용강리		3			산기슭	석곽(3)	군상	옥	동지연 2011
40		나주 노동리 하노동	1				산기슭	기반?(1)	열상		고이즈미1926
41		나주 대초리 남대	3		1	6	계곡평지	기반(2), 개석(2)	타원		전대박 1976
42		나주 마산리 쟁기머리	2	2		1	계곡평지	탁자(1), 개석(3)	열상		전대박 1976
43		나주 관촌리 남판	8	4		2	계곡평지	탁자(1), 기반(6), 석곽(4)	열상		전대박 1976
44		나주 궁원리 먹개동들	4				계곡평지	기반?(4)	열상		영문연 2016
45		나주 영평리 복룡	1	9			구릉정상	위석(1), 석곽(1), 석관(8)	열상, 군상	석검	전문연 2017
46		나주 풍산리 도래 가군	3		4		산기슭	기반(6), 위석(1)	열상		영문연 2020
47		나주 보산리	1	1			산기슭	기반(1),	단독		전대박 1977
48		나주 회진리 사직	1			2	산기슭	탁자(1)	군상	석검, 채문	전대박 1995
49		나주 북암리 랑동	1			2	퇴적평지	개석?(3)	열상	석검	전문연 2006
50	중· 하류 지역	나주 동수동 동령 가군			2		구릉사면	위석(2)	열상		동대박 2007
51		나주 동수동 동령 나군	1				구릉사면	기반(1)	단독		동대박 2007
52		나주 장산리 장사			1		구릉사면	위석(1)	단독		마문연 2008
53		나주 윤곡동 안성 나군	1		2	1	구릉사면	기반(2)	열상	석검, 동검편	마문연 2008
54		나주 윤곡동 안성 라군	2	1			구릉사면	개석(2), 묘실(1)	열상 3호:단독		마문연 2008
55		나주 신포리 내동 가군	2				구릉사면	개석?(2)	열상		동대박 2012
56		나주 송학리 유전 가군	2	9	9	8	산기슭	탁자?(1), 위석(2), 개석(2)	열상, 군상		마문연 2010
57		나주 윤곡동 능동 나군	7	19		1	구릉사면	개석(2), 위석(5) 석곽(17), 석관(1)	열상, 군상		마문연 2011
58		나주 윤곡동 기능	2	1		2	구릉사면	개석(1), 위석(1), 석곽(1)	열상	석검	마문연 2011
59		나주 윤봉리 백운		21	28		계곡평지	기반(5), 묘역(1), 석곽(5) 석관(9)	열상		제문연 2013

연 번	권 역	유적명	발굴기수				입지	주요구조	배치	주요유물	참고
			상석+ 매장	매장	상석+ 묘역, 지석	상석 만					
60		나주 운봉리 백동	1				산기슭	탁자(1)	단독		제문연 2013
61		나주 만봉리 용반 II	4		3	2	계곡평지	탁자(1), 위석(1), 기반(2) 개석(3)	열상		해문연 2014
62		나주 만봉리 용반 III	4	7			계곡평지	위석(5), 묘역(6)	열상, 군상		해문연 2014
63		나주 월양리		24			고갯마루	상석(1), 석곽(12), 석관(5)	열상	석검	마문연 2014
64		나주 동수동 동령 다군	1		1		구릉사면	위석(2)	열상		동지연 2015
65		나주 동수동 동령 라군	1	2			구릉사면	기반(1), 석곽(2)	11자, T자		동지연 2015
66		나주 동수동 동령 마군	2				구릉사면	개석(2)	열상		동지연 2015
67		나주 동수동 동령 바군 (장산리 장사)	6	22	1	6	구릉사면	기반(2), 개석(2), 위석(3) 묘역(1), 석곽(18), 석관(3)	열상, 군상	옥	마문연 2015
68		나주 양산리 양지촌	1				구릉사면	개석(1)	단독		마문연 2015
69		나주 월명		1		1	퇴적평지	개석(1), 석곽(1), 석관(3) 옹관(1)	열상, 군상		동대박 2011
70		나주 와우리	1			3	구릉사면	개석(1)	열상		전문연 2019
71		영암 장산리 주암 가군	1				구릉사면	탁자(1)	열상		국박 1967
72		영암 장천리 피읍 나군	2		2		퇴적평지	기반(1), 개석(3)	군상	동검편	목대박 1984
73		영암 청룡리	4	2	3		퇴적평지	기반(4), 개석(1), 석관(2)	열상		목대박 1984
74		영암 산호리		10			퇴적평지	석곽(10)	군상, 열상	석검	목대박 1993
75		영암 채지리	1				산기슭	개석(1)	단독		목대박1996
76		영암 망산리	3	1		1	구릉사면	기반(1), 개석(2), 석곽(1)	열상	옥	목대박 1996
77		영암 옥야리 남해포	2	3			구릉정상	개석(1), 위석(2), 석곽(2)	열상		목대박 2000
78		영암 회문리 녹암			1		평지	기반(1)	단독		동지연 2008
79		영암 용산리 용산 나군		3	5	6	산록평지	기반(1), 석곽(1)	군상		동지연 2008
80		영암 서호리 소서호 가군	11	36	1		구릉정상	기반(5), 개석(3), 위석(7) 묘역(16), 석곽(7), 석관(7)	열상, 군상	청동방울	동지연 2008 기문연 2020
81		영암 장천리 효성 가군	1				퇴적평지	기반(1)	열상		영문연 2012
82		영암 엄길리	13	14	4	3	퇴적평지	기반(4), 개석(16) 석곽(6), 석관(3)	열상	석검, 점토대, 흑도	동지연 2013
83		영암 회문리 회촌	2	25			평지	기반(2), 묘역(4), 석곽(7)	열상	석검	동지연2016
84		함평 산내리 송산	1			7	계곡평지	기반(1)	열상, 군상		목대박 1992
85		함평 용두리 선박 나군			1		산기슭	기반(1)	단독		호문연 2008
86		함평 상곡리 운곡	2	34		2	계곡평지	탁자(1), 위석(1)	열상 탁자 독립		호문연 2007 영문연 2014
87		함평 덕림리 백양		33			퇴적평지	석곽(21), 석관(9)	열상	석검, 옥, 점토대	대문연 2014
88		함평 진양리 각골		3	1		산록평지	기반(1), 석곽(3)	T자		목대박 1997
89		함평 곡창리 신곡 나군			1		구릉정상	기반(1)	단독		호문연 2005
90		함평 대덕리 고양 가군	3	2			산기슭	탁자(3), 석곽(2)	열상	석검	동지연 2010
91		함평 자룡리 신평 가군		1	1		구릉정상	기반(1), 석관(1)	열상		동문연 2016
92	서해안 지역 - 서부	무안 월암리 회인동	1			3	평지	기반(1)	열상	옥	목대박 1992
93		무안 성동리 안골	13		1	2	계곡평지	탁자(6), 기반(3), 위석(1) 개석(1)	열상, 군상		목대박 1997
94		무안 맥포리	5		1	3	구릉정상	기반(4), 위석(2)	열상		호문연 2005
95		무안 평산리 평림	6				구릉정상	주형(1), 위석(1), 기반(2)	열상		전대박 2007
96		무안 하묘리 두곡	6	9		3	구릉정상	개석(3), 위석(2), 석곽(2) 석관(1), 토광(1)	열상, 군상		전문연 2012

연 번	권 역	유적명	발굴기수				입지	주요구조	배치	주요유물	참고
			상석+ 매장	매장	상석+ 묘역, 지석	상석 만					
97	서해 연안 지역 - 서 북부	무안 상마리 상마정	7	12	3	14	구릉사면	탁자(4), 주형(3), 주형+탁자(1), 기반(4), 개석(4) 위석(1), 석곽(5), 석관(5)	열상, 군상		동지연 2014
98		무안 용정리 신촌 II		3		1	구릉사면	석관(2)	열상		대문연 2016
99		목포 석현동 도릉		5	4	4	구릉정상	기반(5), 석곽(1), 석관(2)	3호 독립 열상, 군상		민문연 2019
100		고창 용계리 Y지구	4			3	계곡평지	주형(2), 기반(2)	군상		전시박 1984
101		고창 윤곡리 A~C지구	6		6	4	계곡평지	주형(3), 기반(9)	열상, 군상		전시박 1984
102		고창 상갑리	3				산기슭	개석(1), 기반(2)	열상		국박 1993
103		고창 죽림리	14		3	1	산기슭	탁자(9), 탁자+기반(5)	열상		원마백 1993
104		고창 죽림리 재해		1	2	1	산기슭	주형(2), 석관(1)	열상	점토대	원대박 2009
105		고창 암지리 아군			1		산기슭	기반(1)	단독		원대박 2001
106		고창 예지리 대성	1				구릉정상	개석(1)	단독		전주박 2002
107		고창 계산리			1	3	산기슭	주형(1)	단독		호문연 2004
108		고창 부곡리	2	17	1		구릉정상	주형+탁자(1), 기반+탁자(1), 기반(1), 석관(6), 석곽(3), 토광(2)	열상		호문연 2006
109		고창 죽림리	1				구릉정상	기반(1)	단독		원마백 2006
110		고창 도산리	2			3	구릉정상	탁자(1), 기반(1)	군상		전주연 2010
111		고창 계당리 라군			2	7	산기슭	주형(1), 기반(1)	열상?		전라연 2014
112		고창 금평리	7	4	1	1	구릉사면	주형(1), 기반(4), 개석(3) 석곽(1), 석관(3)	열상, 군상		전라연 2015
113		고창 부곡리 강천	1				퇴적평지	탁자(1)	단독		전북연 2020
114		영광 대덕리 복룡			2	6	구릉사면	주형(1), 기반(1)	열상?		전대박 2002
115		영광 영양리 수왕		8			산기슭	석관(6)	열상		광박 2002
116		영광 영양리 영촌 나군	2		1	1	산기슭	주형(2), 개석(1)	군상	석검	광박 2002
117		영광 금계리 유봉		1	2	1	구릉사면	주형(2), 기반(1)	열상		호문연 2004
118		영광 삼효리 석전 가			1		구릉사면	주형(1)	단독		호문연 2004
119		영광 송학리 유천 가군		7	2		구릉사면	개석(1), 석곽(1)	군상		동지연 2008
120		영광 송죽리 외촌 가군	1	2		3	고갯마루	기반(1), 석곽(2)	군상		동지연 2013
121		영광 길용리 용암 라			1		계곡평지	기반(1)	단독		동지연 2014
122	서해 남부 지역	해남 호동리			1		구릉정상	기반(1)	단독		목대박 1992
123		해남 고현리	1	1			산기슭	기반(1), 석곽(1)	열상		목대박 1998
124		해남 장소리 장소	1				구릉정상	기반(1)	단독		목대박 2000
합계			267	441	161	188					

Ⅲ. 입지와 군집상 특징

1. 입지 특징²⁾

입지지형은 사람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당시 집단의 생계방식이나 생활환경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지식묘의 입지는 크게 구릉, 산기슭, 평지, 고갯마루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연지형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입지는 전체적으로 산기슭에 위치하는 양상이 확인되며,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表 3. 영산강유역권 권역별 입지(이영문 2002 수정·인용)

입지 \ 권역	상류	중·하류	서해연안	서해남부	계
구릉	104(25.7%)	173(41.4%)	282(43.5%)	43(36.7%)	602(37.9%)
평지	126(31.1%)	95(22.7%)	76(11.7%)	26(22.2%)	323(20.3%)
산기슭	158(39.1%)	121(29%)	250(38.6%)	38(32.4%)	567(35.7%)
고갯마루	16(3.9%)	28(6.7%)	39(6%)	10(8.5%)	93(5.8%)
계	404(25.4%)	417(26.2%)	647(40.9%)	117(7.3%)	1,585(100%)

구릉입지는 저평한 구릉이나 산사면에서 뺀내린 능선상의 정상부 또는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저평한 구릉지대보다는 대부분 산과 인접한 능선상에 있는 분포하는 양상이다. 분포 비율을 보면 서해연안지역 43.5%, 중·하류지역 41.4%, 서해남부지역 36.7%, 상류지역 25.7% 순으로 나타나 산지 지형보다는 평야지형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평지입지는 산지 지형의 계곡평지와 강변의 퇴적평지에 분포하고 있다. 강변의 퇴적평지보다는 계곡평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분포 비율은 상류지역 31.1%, 중·하류지역 22.7%, 서해남부지역 22.2%, 서해연안지역 11.7%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구릉과 평야지대가 발달한 서해연안지역에 비율이 낮으며, 산지 지형인 상류지역에 계곡평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도서지역인 신안군의 입지는 하천이 발달하지 못한 특성으로 인해 평지의 비율이 더욱 높다.

산기슭입지는 산사면의 경사면과 산중턱(산록하사면) 또는 경사면 끝자락에서 평지(산록하평지)로 이어지는 곳에 분포하고 있다. 산록하평지의 경우 평지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가 있고, 평지입지보다 높은 지형이다. 분포 비율은 상류지역 39.1%, 서해연안지역 38.6%, 서해남부지역 32.4%, 중·하류지역 29% 순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편이나 평야가 발달한 중·하류지역에서는 비율이 낮다.

고갯마루 입지는 산마루와 구릉마루로 나누어지는데 산마루는 높은 지형으로 양쪽에는 경사가 심하며, 구릉마루는 세장하게 뺀 구릉의 끝에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지형으로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분포 비율은 3~8% 정도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해연안지역에서 중·하류지

2) 입지와 군집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입지의 특징이 부각 될 수 있도록 분포조사 보고서(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5 : 2016 : 2017)에서 세분한 지형을 보다 단순화시켰다.

역으로 들어서는 곳에 많이 분포한다. 대표적으로 나주 복암리 시랑골, 함평 곡창리 신곡 다군, 무안 성동리 안골, 영광 성산리 등이 있다. 이 유적들은 고개 양쪽 지역에 다수의 지석묘군들이 분포하고 있어 지석묘 축조 집단의 활동영역을 추론할 수 있으며, 집단 간의 경계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영문 1987:82).

이외에 산 정상부에서도 지석묘가 입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주 회진리 사직 지석묘와 함평 삼축리 연화동 지석묘가 있다. 이곳은 낮은 야산의 정상부로 주변 지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2. 군집수와 밀집분포지

지석묘는 농경의 시작, 정착생활, 공동체 집단의 의례행위로써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에는 안정적인 생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경지의 확대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집단 간의 경쟁은 공동체 집단 간의 영역 설정이 요구되며(손준호 2011), 이러한 영역의 표시로서 지석묘를 상징하기도 한다(김장석 2002; 이영문 2002; 김범철 2011). 따라서 지석묘의 분포상과 군집수는 당시의 문화영역이나 생활권을 파악(이영문 1996:398)해 볼 수 있다.

表 4. 영산강유역권 권역별 지석묘 군집수(이영문 2002 수정·인용)

권역 군집	상류	중·하류	서북부	남부	계
초대군집(60기 이상)	2(0.4%)	2(0.4%)	3(0.4%)	2(1.7%)	9(0.5%)
대군집(30기 이상)	5(1.2%)	12(2.8%)	4(0.6%)	3(2.5%)	24(1.5%)
중대군집(20~29기)	8(1.9%)	18(4.3%)	22(3.4%)	14(11.9%)	62(3.9%)
중소군집(10~19기)	33(8.1%)	83(19.9%)	81(12.5%)	23(19.6%)	220(12.8%)
소군집(2~9기)	243(60.1%)	249(59.7%)	384(59.3%)	64(54.7%)	940(59.3%)
단독(1기)	113(27.9%)	53(12.7%)	153(23.6%)	11(9.4%)	330(20.82%)
계	404(25.4%)	417(26.3%)	647(40.8%)	117(7.3%)	1,585(100%)

군집수는 현재까지 가장 많이 보고된 기수로 파악하였으나 실제로는 군집수에 따른 군집유형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예로 무안 상마정 상마리 지석묘군은 탁자식, 기반식(주형), 개석식 등 모든 형식이 확인되었는데, 지표조사에는 16기가 보고되었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최소한 24기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중소군집이었던 것이 중대군집으로 바뀌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자칫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일정한 지역에 밀집분포하고 있으며, 군집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권역별 지석묘 군집수를 보면 초대군집에서 소군집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관계를 보인다. 이는 대군집일수록 오랜기간 축조되어 왔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동시기성이라는 가정을 두면 각 군집 간에 우열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상류지역에는 화순 효산리·대신리 일대에 밀집분포하고 있으며, 그 주변의 비봉산 북사면부에 대군집인 대곡리 내대곡 나군이 자리한다. 이곳은 지석천변의 광활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고, 주변은 산지가 발달해 수렵과 채집은 물론 농경에도 좋은 자연지형을 갖추고 있다. 대군집은 지류인 광주 평림천 인근의 삼거동과 담양 평장리 대야 나군이 있으며, 산기슭의 경사면에 입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외에 작은 군집은 주변 지류를 따라 분포하고 있다. 영산강 최상류지역인 장성·담양지역에는 중대군집 이상이 확인되지 않고, 분포상에서도 그 밀집도는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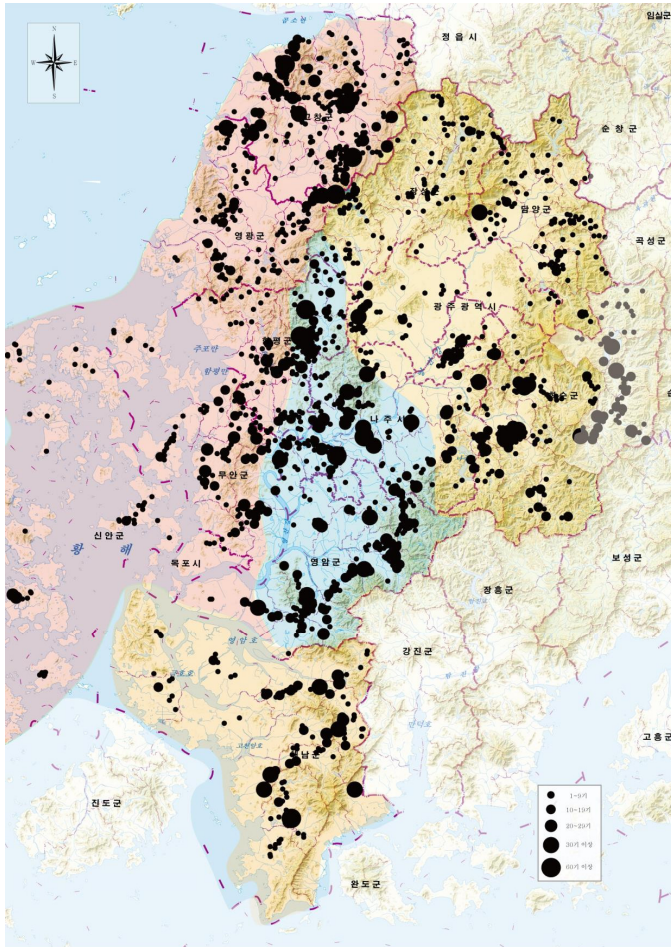


圖 1. 영산강유역권 지석묘 군집별 분포도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재편집)

서부연안지역은 서북부지역인 고창 죽림리일대와 상금리 일대에서만 최대밀집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금리는 상금마을에서 서쪽 고갯길을 따라 넘어가면 장성 삼계면과 이어지고 양 지역들은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어 영산강유역과의 이동·전파와 관련해 추론해 볼 수 있다. 대군집인 고창 교흥리, 안산리 안산, 영광 성산리 등 서해안과 멀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주진천과 와탄천과 같은 비교적 큰 하천 주변의 고창 성송면 일대와 영광 백수읍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고창·영광 분지의

중·하류지역의 초대군집은 나주 신포리와 동수동 동령 나군이 대표적인데, 대군집인 나주 운곡동 기능과 동수동 동령 바군, 운봉리 백운지석묘군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나주 다시·왕곡 일대에 초대군집과 대군집이 밀집분포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외에 함평 나산·해보 일대에 상곡리 운곡과 덕림리 백양 지석묘군이 삼포천과 영암천의 상류에 인접해 영암 장산리 주암과 회문리 회촌이 자리한다. 이곳은 영산강 본류 또는 지류의 드넓은 충적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낮은 야산의 경사면이나 구릉에 입지하고 있다.

이 군집들을 중심으로 주변에 작은 군집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만봉천 상류역의 나주 세지일대, 영산강 본류의 동강일대, 영암 서호면일대에 중대·중소군집이 밀집분포한다.

이외에 주목되는 곳은 함평 나산면 원선리 일대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원선마을 북서쪽의 계곡부 골짜기에 지석묘로 추정되는 석재 수습기가 산재하고 있어 초대형군집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

주위에 밀집분포한 양상인데, 동쪽은 해안, 북쪽과 서쪽은 산지를 중심으로 한 생계방식에 따라 생활환경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역인 함평·무안 일대에는 대군집 이상의 군집은 확인되지 않으나 함평천 주변의 대동·함평읍 일대와 영산강 본류와 인접한 무안 몽탄·일로 일대에 중소·중대군집이 밀집분포한다. 서해안과 인접한 운남면 일대에는 소군집 중심의 밀집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서해도서의 신안 압해 일대와 안좌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서해남부지역의 초대군집은 해남 현산면에 위치한 황산리 분토유적이 있다. 이곳은 두륜산의 남서쪽으로 뻗은 지맥의 말단부로 1.2km 범위에 추정 지석묘가 산재해 있다. 대군집은 해남 읍호리 읍호 나군과 방축리가 있으며, 두 군집은 모두 산사면 말단부에 위치하고, 서해 또는 구산천을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분포지는 해남군의 남쪽에 위치한 현산·화산면에 밀집분포하고 있으며, 이와 지역으로 옥천·마산·삼산면 일대에 소·중소군집이 분포한다. 군집수로 본 분포상의 특징은 일정범위에 초대군집과 대군집이 자리하고 중·소군집이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집수와 분포상을 통해 영산강유역권의 양상을 살핀 결과, 일정 지역에 중심밀집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초대군집 또는 대군집 중심으로 주변에 중·소군집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대군집 이상의 군집들은 비교적 높은 곳에 입지하고, 주변지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밀집분포지는 지석묘 축조집단이 일정한 범위를 형성하면서 지역적으로 영역권을 이루고 있었음을 짐작케 해준다. 그리고 영산강유역권의 최대밀집지라 알려진 나주 다시·왕곡 일대(이영문 1987:85)에서 초대군집과 대군집이 다수 확인되는 점은 이 일대가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IV. 지석묘의 형식과 출토유물

1. 지석묘 형식과 특징

지석묘 형식은 외형상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으로 구분되고, 하부구조에서 확인되는 지석, 묘역시설, 매장시설의 위치와 축조방식 등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었다(하문식 2017:31~38). 지석묘의 가장 큰 특징은 외형상에 나타나는 거대한 상석이다. 영산강유역권의 지석묘는 지역적인 분포수의 차이는 있지만 탁자식과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이 모두 확인된다. 호남지역 지석묘의 특징³⁾인 탁자식지석묘와 주형지석묘, 대형기반식지석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탁자식 지석묘

탁자식지석묘는 환황해문화권을 거론할 만큼 특징적인 형식(김정배 1996; 하문식 1997)으로 서북한지역과 강화도를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전북 부안과 고창, 전남 영광, 함평, 무안, 영암, 해남에 이르기까지 서해안에 인접해 분포하고 있다. 경남 거창(하인수 1989)에서도 확인되지만 영남

3) 호남지역 지석묘의 특징은 일정지역에 밀집분포 하는 점, 다양한 형태와 유형이 나타나는 점, 대형 기반식의 존재, 지역에 따른 출토유물의 종류와 빈도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이영문 2009). 탁자식이나 주형지석, 대형 기반식과 같은 특징적인 지석묘는 지표에서도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분포가 희박한 편이다. 내륙으로는 금강 상류지역인 장수 삼봉리와 영산강유역인 나주와 광주, 화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영산강유역권에서 확인된 탁자식지석묘는 탁자식요소를 가진 것을 포함하면 60기 정도이고, 주로 서해안과 영산강하류에 밀집된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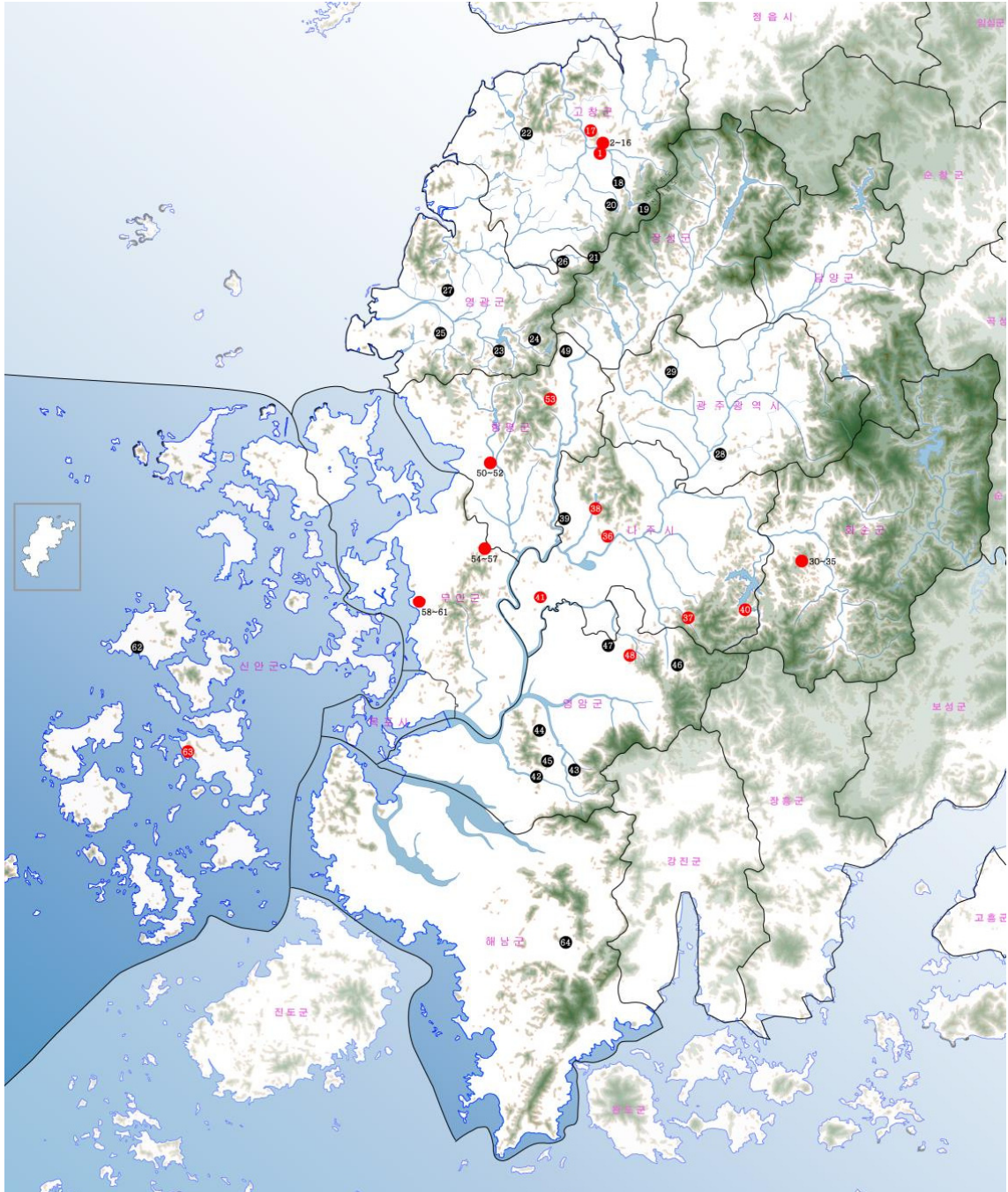


圖 2. 영산강유역권 탁자식지석묘 분포도(표 5와 연번동일)

탁자식지석묘는 평지, 구릉정상, 구릉사면, 산록하사면, 산록하평지, 고갯마루 등 모든 입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입지는 대부분이 산사면이나 구릉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으며, 영산강 중·하류와 서부지역에는 평지에 가까운 입지에 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이외에 고창 상금리 7호의 경우 고갯마루에 위치하고 있다. 입지는 호남지역에서 분포된 고인돌 입지와 같은 양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고인돌 형식에 따른 입지 선정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이영문 2011:112).

탁자식지석묘의 군집유형은 1기만 있는 단독 입지와 군집 내에서 일정 거리를 둔 독립 입지, 탁자식 중심의 군집, 다른 형식과 공존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영산강유역권에는 탁자식 1기와 기반식, 개석식, 위석식, 주형지석묘 등과 함께 열상으로 배치된 것이 많다.

단독 입지는 고창 부곡리 강촌, 나주 운봉리 백동, 나주 송촌리 송정 나, 신안 백산리 백산 가 등 총 4기이다. 고창 부곡리 강촌은 퇴적평지에 자리하고, 이외 탁자식은 산사면이나 구릉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운봉리 백동의 경우 탁자식으로 보고되었지만 구조로만 볼 때 수매의 두꺼운 판석을 세워 둘러놓았고, 매장시설 내 폭도 넓은 점 등 축조방법이 흡사 제주도의 위석식 지석묘와 닮아있다. 이는 탁자식의 변화과정이나 지역적인 특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립 입지는 영광 쌍운리 회복 가군과 함평 상곡리 운곡 지석묘군이 대표적이다. 상곡리 운곡 유적은 기존에 보고된 운곡지석묘군에 대한 시굴조사(호남문화재연구원 2007)가 이루어져 기반식 16기, 개석식 5기와 함께 주변에서 40여기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35여m 떨어진 곳에 탁자식 지석묘(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4)가 독립되어 있다. 내부에서 석축이 2점 출토되어 매장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기반식과 개석식 중심의 군집의 배열과 매장시설의 장축방향 등이 탁자식지석묘를 향하고 있어 상징지석묘와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탁자식 중심의 군집은 고창 죽림리와 무안 성동리, 함평 대덕리가 있다. 고창 죽림리(원광대학교 1993)는 각 군집이 모여 초대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발굴조사 된 곳은 탁자식만 확인되고 있다. 무안 성동리는 900cm 크기의 초대형 지석묘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탁자식지석묘가 열상배치 되어있다. 함평 대덕리는 3기의 탁자식지석묘가 1열로 배치되어 있고, 주변에 지하형 매장시설이 확인되었다. 1호에서 유경식석검, 방추차가 삼국시대 개배 등의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다. 탁자식의 묘실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에 추가장이나 제의와 같은 시설로 재 활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탁자식을 중심으로 다른 형식이 공존하는 군집은 영산강유역권 탁자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반식과 공존하는 예는 나주 판촌리 남판 3호, 나주 만봉리 용반 5호, 광주 용두동 19호가 있다. 이외에 무안 상마정 1호와 같이 주형지석과 소형 탁자식이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개석식과 공존하는 것은 나주 마산리 쟁기머리 3호로 탁자식의 형식은 장벽과 단벽을 1매씩 口자 형태로 짜놓은 소형석실이다. 이외에 나주 월양리에서는 상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상식에 두꺼운 벽석으로 축조한 소형석실이 1기 확인되었다. 군집내 정중앙에 자리하며, 주변에는 수십기의 석관형, 석곽형, 토광형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었다. 상류지역의 화순 대신리·효산리 지석묘군에서 조사된 탁자식은 기반식과 개석식, 위석식 등 모든 형식과 공존하고 있다.

表 5. 영산강유역권 탁자식지석묘 현황(이영문 2011 도표 수정·인용)

연번	권역	유적명	입지	군집 형태	상석규모(cm)			벽석 수	조사	비고
					장축	단축	두께			
1	서북부	고창 도산리	구릉정상	군집	350	310	38	2매(장벽)	발굴	
2		고창 죽림리 2320호	산기슭	군집	190	175	60	3매(장벽)	발굴	
3		고창 죽림리 2322호	산기슭	군집	275	152	60	10매(장벽8,단벽2)	발굴	
4		고창 죽림리 2323호	산기슭	군집	220	135	60	8매(장벽6,단벽2)	발굴	
5		고창 죽림리 2324호	산기슭	군집	310	160	50	6매(장벽4,단벽2)	발굴	
6		고창 죽림리 2325호	산기슭	군집	170	105	48	7매(장벽5,단벽2)	발굴	
7		고창 죽림리 2326호	산기슭	군집	320	175	90	6매(장벽3,단벽3)	발굴	
8		고창 죽림리 2327호	산기슭	군집	224	140	60	7매(장벽4,단벽3)	발굴	
9		고창 죽림리 2328호	산기슭	군집	312	132	83	5매(장벽3,단벽2)	발굴	
10		고창 죽림리 2329호	산기슭	군집	172	120	40	8매(장벽6,단벽2)	발굴	
11		고창 죽림리 2330호	산기슭	군집	210	130	50	7매(장벽4,단벽3)	발굴	
12		고창 죽림리 2333호	산기슭	군집	270	155	80	8매(장벽4,단벽4)	발굴	
13		고창 죽림리 2331호	산기슭	군집	224	197	52	4매(장벽2,단벽2)	발굴	
14		고창 죽림리 2428호	산기슭	군집	360	200	70	3매(장벽2,단벽1)	발굴	
15		고창 죽림리 2443호	산기슭	군집	350	310	38	2매(장벽)	발굴	
16		고창 죽림리 2509호	구릉정상	군집	340	240	150	2매(장벽)	지표	
17		고창 아산면 용계리	계곡평지	군집	575	330	154	4매(장벽2,단벽2)	발굴	
18		고창 부곡리 강촌	퇴적평지	1기	285	230	145	5매(장벽4,단벽1)	발굴	
19		고창 은사리 다군 3호	산기슭	군집	360	200	90	4매(장벽)	지표	
20		고창 초내리 4호	구릉정상	군집	450	420	170	5매(장벽4,단벽1)	지표	
21		고창 상금리 7호	고갯마루	군집	200	160	57	3매(장벽2,단벽1)	지표	
22		고창 하런리 가군 4호	산기슭	군집	220	(160)	40	2매(장벽)	지표	
23		영광 쌍운리 회복 가군 7호	산기슭	군집	280	200	90	2매(장벽2)	지표	
24		영광 삼학리 왕촌	고갯마루	2기	304	130	52	2매(장벽2)	지표	
25		영광 설매리 동고 4호	구릉사면	군집	250	200	85	3매(장벽2,단벽1)	지표	
26		영광 복평리 석정 나군 7호	구릉정상	군집	510	300	75	1매(장벽)	지표	
27		영광 죽사리 명산 가군 5호	산기슭	군집	200	180	138	1매(장벽)	지표	
28	상류	광주 산수동 용산 1호	구릉정상	군집	370	280	60	2매(장벽)	지표	
29		광주 용두동 19호	구릉정상	군집	340	220	120	3매(장벽2,단벽1)	지표	
30		화순 대신리 마당바위 12호	산기슭	군집	350	250	50	4매(장벽2,단벽2)	발굴	
31		화순 대신리 지동	계곡평지	군집				4매(장벽2,단벽2)	지표	
32		화순 대신리 지동	계곡평지	군집				6매(장벽4,단벽2)	지표	
33		화순 대신리 지동C군 28호	계곡평지	군집				5매(장벽3,단벽2)	발굴	
34		화순 대신리 지동C군 29호	계곡평지	군집				3매(장벽1,단벽2)	발굴	
35		화순 대신리 감태바위 24호	산기슭	군집				3매(장벽2,단벽1)	발굴	
36	중하류	나주 회진리 사직 1호	산기슭	군집	405	280	115	3매(장벽2,단벽1)	발굴	

연번	권역	유적명	입지	군집 형태	상석규모(cm)			벽석 수	조사	비고
					장축	단축	두께			
37		나주 만봉리 용만 II 5호	평지	군집	250	195	85	3매(장벽2,단벽1)	발굴	
38		나주 운봉리 백동	산기슭	1기	412	328	82	12매(장벽8,단벽4)	발굴	
39		나주 송촌리 송정 나	산기슭	1기	230	160	90	3매(장벽2,단벽1)	지표	
40		나주 마산리 쟁기머리 3호	평지	군집	320	260	40	4매(장벽2,단벽2)	발굴	
41		나주 월양리 13호	고갯마루	군집				4매(장벽2,단벽2)	발굴	
42		영암 독천리 독천	산기슭	군집	210	155	30	3매(장벽2,단벽1)	지표	
43		영암 용산리 용산 가군 1호	평지	군집	330	120	30	2매(장벽)	지표	
44		영암 소산리 소홀 가군 2호	평지	군집	545	415	180	2매(장벽)	지표	
45		영암 화송리 송정	구릉정상	군집	310	240	25	3매(장벽2,단벽1)	지표	
46		영암 용흥리 옥포 12호	평지	군집	320	180	110	2매(장벽)	지표	
47		영암 행정리 광암 가군 2호	구릉정상	군집	220	200	60	4매(장벽2,단벽2)	지표	
48		영암 장산리 주암 가군	산기슭	군집	280	160	125	6매(장벽4,단벽2)	발굴	
49	서부	함평 용암리 연화 3호	구릉정상	군집	270	200	120	2매(장벽)	지표	
50		함평 대덕리 고양 가군 1호	산기슭	군집	268	172	66	4매(장벽2,단벽2)	발굴	
51		함평 대덕리 고양 가군 2호	산기슭	군집	284	144	52	2매(장벽1,단벽1)	발굴	
52		함평 대덕리 고양 가군 3호	산기슭	군집	286	238	62	3매(장벽2,단벽1)	발굴	
53		함평 상곡리 운곡 2호	계곡평지	독립	289	281	68	3매(장벽2,단벽1)	발굴	
54		무안 성동리 안골 나군 1호	계곡평지	군집	534	380	102	5매(장벽4,단벽1)	발굴	
55		무안 성동리 안골 나군 3호	계곡평지	군집	280	246	82	6매(장벽4,단벽2)	발굴	
56		무안 성동리 안골 나군 4호	계곡평지	군집	459	354	89	5매(장벽3,단벽2)	발굴	
57		무안 성동리 안골 나군 8호	계곡평지	군집	328	232	64	4매(장벽2,단벽2)	발굴	
58		무안 상마리 상마정 6호	구릉사면	군집	314	254	58	2매(장벽2)	발굴	
59		무안 상마리 상마정 9호	구릉사면	군집				1매(장벽1)	발굴	
60		무안 상마리 상마정 15호	구릉사면	군집				2매(장벽2)	발굴	
61		무안 상마리 상마정 26호	구릉사면	군집					발굴	파괴
62	서부	신안 백산리 백산 가	구릉정상	1기	460	340	30	2매(장벽)	지표	
63	도서	신안 안좌 방월리 B군 8호	산기슭	군집	202	126	56	6매(장벽3,단벽3)	시굴	
64	남부	해남 해남 신흥리 감당	산기슭	군집	220	200	60	2매(장벽)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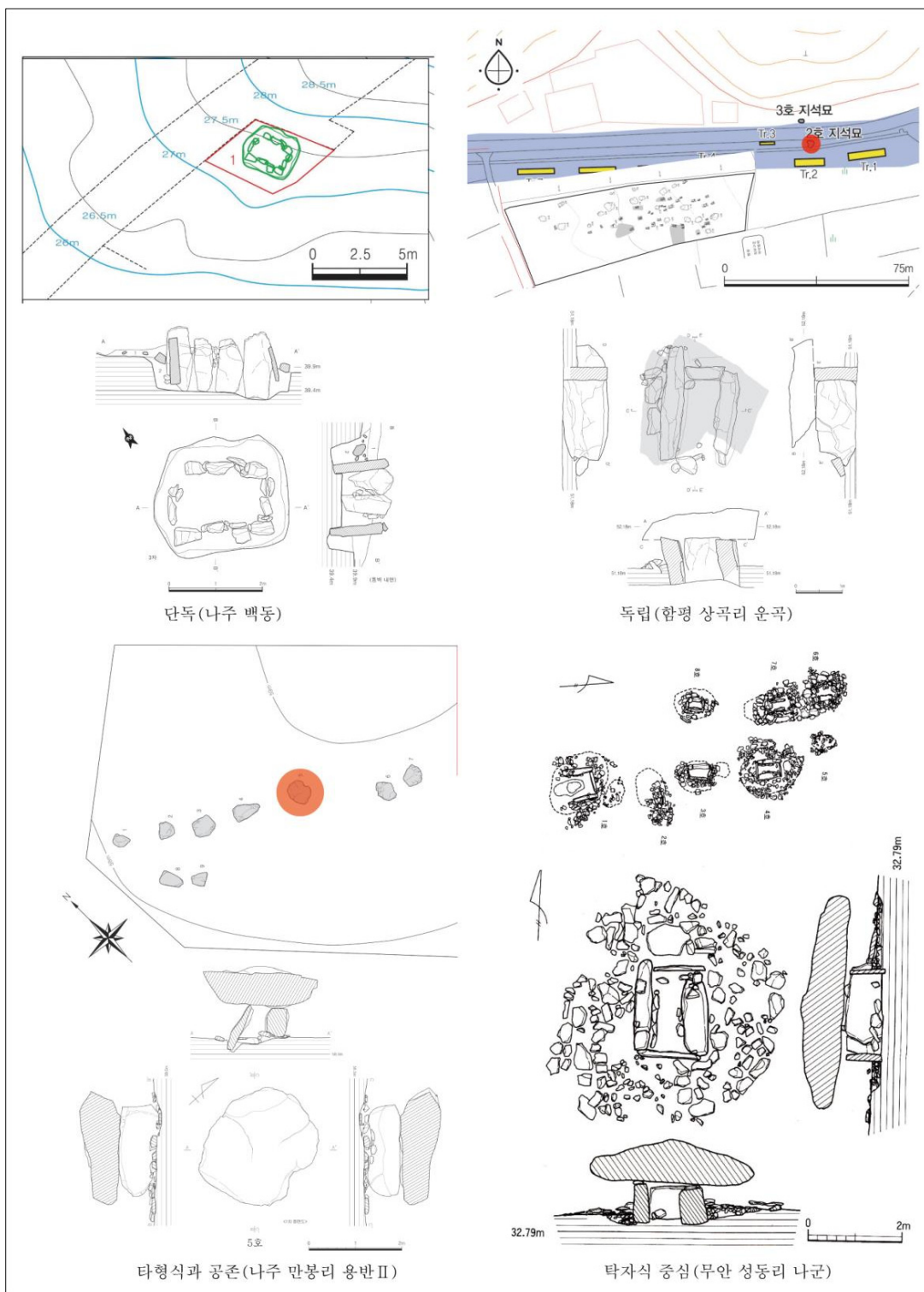


圖 3. 영산강유역권 탁자식 지석묘 군집양상

2) 주형지석묘

주형지석묘는 지역성이 강한 지석묘로 고창·영광지역인 서북부지역에 밀집분포하고 있다. 주형지석묘의 분류 기준은 지석의 높이가 50cm 이상이면서 사각형의 장주형이나 제형으로 다듬은 할석이 4곳에 배치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선기 1997; 유태용 2007; 이영문 2011). 외형상 기반식으로 구분되지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주형지석묘로 확인된 경우도 다수 있다. 그동안의 분류기준과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지석의 높이가 50cm 이상이면서 지표면과 상석 하면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고, 사각형이나 제형으로 다듬은 할석이 4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⁴⁾.

영산강유역권에서 확인된 주형지석묘는 82개소 120기이다. 분포는 주진천 중류지역인 고창군 아산면, 해리면 일대와 상류의 성송면 암치리, 상금리일대. 와탄천 상류지역의 영광 대마면, 백수읍 일대에 밀집분포하며, 노령산맥 인접지역에 더 밀집되어 있는 양상이다(김선기 1997). 이외에 노령산맥과 인접한 장성과 서부지역인 함평, 무안, 영산강유역의 광주, 영암, 신안 안좌도와 압해도에도 분포하고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다.

입지는 구릉과 산기슭, 평지, 고갯마루 등 모든 곳에서 확인되며, 구릉정상부나 구릉사면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평지나 고갯마루에도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구릉이 발달한 서해안지역의 입지와 비슷한 양상이다.

군집은 1기만 있는 단독, 군집내에서 일정 간격을 둔 독립, 군집 내 중앙과 외곽에 배치 되는 것으로 구분된다. 주형지석묘만 군집한 경우는 없으며, 대개 탁자식이나 기반식, 개석식과 같은 다른 형식과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입지는 나지막한 구릉정상, 산사면 능선의 정상부 등 비교적 높은 곳에서 주변지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평지에 위치한 경우도 주변에 있는 지석묘군보다 비교적 높은 지점에 있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고창 계당리 나, 고창 산수리 다, 영광 삼효리 석전 가 유적이 있다.

군집 내에서 독립된 지석묘는 모두 지표에서 확인된 것으로 대표적인 유적은 함평 원선리 유촌과 용암리 신성, 장성 부성리 절암 지석묘군이 있다. 함평 원선리 유촌은 계곡평지에 29기가 4열로 배치되어 있다. 주형지석묘로 추정되는 지석이 노출된 29호는 군집과 10여m 떨어진 곳에 독립되어 있다.

군집 내 중앙에 있는 지석묘는 구릉정상에 위치한 군집에서 주로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영광 성산리와 영암 학계리이다. 영광 성산리 유적은 46기의 지석묘가 4열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앙에 주형지석묘인 26호가 자리한다. 이러한 배치는 탁자식지석묘나 상징지석묘와 같은 입지를 보인다(이영문 2011:131).

군집 내 외곽에 있는 지석묘는 군집에서 치우쳐 있거나 열상의 끝에 배치되어 있다. 발굴조사된 고창 금평리 1호와 영광 대덕리 복룡, 무안 상마리 상마정 1호가 대표적이며, 군집 내에서 입지적인 차이를 보인다. 고창 금평리는 산사면의 등고선과 평행하게 열상배치되어 있는데, 주변의 다른 형식의 지석묘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 하지만 영광 대덕리 복룡 지석묘군은 나지막한 능선위에 위치하는데 주형지석묘가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그리고 무안 상마리 상마정의 경우 등고선과 평행을 이룬 군집 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 군집 내에서 꼭 탁월한 입지를 선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4) 발굴조사나 지표조사시 확인되는 주형지석묘는 지석이 4곳이 아니지만 지석의 높이가 50cm 이상이면서 사각형 또는 제형으로 다듬은 지석이 확인되는 것을 포함하였다.

있어 탁자식과 함께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김선기 1997)하고 있다. 탁자식의 형식은 남쪽으로 갈수록 지석이 낮아지고, 상석이 1m 이상 두꺼워지는 특징(이영문 2011)을 갖고 있는데, 남쪽에서 확인된 주형지석묘도 지석의 높이가 낮아지고, 상석도 두꺼워지는 특징을 보인다.



圖 5. 영산강유역권 주형지석묘 일괄

3) 대형 기반식지석묘

대형 기반식지석묘는 수십에서 수백 톤에 이르는 거대한 상석을 가진 지석묘로 외형적으로 다른 지석묘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다. 또한 매장시설이 없는 것이 많아 무덤의 성격이 아닌 재단고인돌(이용도, 하문식 1989)이나 상징적인 기념물(하문식 1998), 재단 또는 묘표석(이영문 1994)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혈연집단이나 지역집단의 기념물, 가매장시설(이영문 2011)로서의 기능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 기반식지석묘 중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상징적지석묘로 뚜렷히 구분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⁵⁾.

영산강유역권에서 발굴조사된 상징지석묘는 32개군 39기가 확인된다⁶⁾. 입지는 평지, 산록하사면, 구릉정상, 구릉사면 등에서 확인되나 고갯마루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규모는 길이가 400cm 이상이면서 두께가 200cm 내외인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지석은 괴석형의 대형 상석에는 7~12매의 지석이 확인되고, 장방형 상석에는 자연석이나 할석 또는 주형지석을 4~5매를 고이고 있다. 이와 같은 외형상의 특징은 매장시설이 있는 지석묘와는 규모와 형태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군집양상은 배치와 입지 상태에 따라 1기만 있는 단독, 군집에서 떨어져 있는 독립, 군집 내 중앙배치, 군집 내 외곽 배치로 구분된다.

단독입지는 대부분 1기이지만 2기가 함께 배치되는 것도 있다. 발굴된 지석묘는 광주 덕림리 수성, 화순 서태리 태곡 나, 나주 장산리 장사, 영암 회문리 녹암, 함평 곡창리 신곡 나군에서 단독으로 1기씩만 입지한다. 나주 만봉리 용반 III군에서는 2기가 마주보고 배치되어 있다. 광주 덕림동 수성은 산기슭 말단부인 산록하사면에 위치하며, 길이 802cm, 두께 200cm 크기의 괴석형의 기반식지석묘이다. 지석은 대형지석과 소형지석을 둘러가며 고였다. 나주 장산리 장사 지석묘는 구릉정상부에 472×436×264cm 규모에 12매의 지석을 고인 기반식지석묘이다. 내부에는 할석을 깔았으며, 원형의 구획석이 있다. 영암 회문리 녹암 지석묘는 평지에 위치하며, 길이가 708cm, 두께가 106cm이고, 지석은 5매가 고여있다. 나주 만봉리 용반은 2기가 마주보고 있다. 3호와 8호가 여기에 해당하며, 모두 기반식지석묘이다. 3호는 매장시설이 확인 지석묘 군집 내에서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8호는 남동쪽 20여m 떨어져 독립되어 있다. 3호는 구획석과 묘역석을 갖추고 있으나 8호는 지석을 타원형으로 둘러가며 고인 구조이다.

독립입지는 열상 또는 군상을 이루는 군집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대부분 일반적인 지석묘들보다 높은 곳에 축조되는 양상이다. 발굴된 유적은 함평 상곡리 운곡, 나주 영평리 복룡, 나주 송학리 유천 가군 등이 있다. 함평 상곡리 운곡 지석묘는 시굴조사를 통해 60여기가 확인되었는데 동쪽으로 40여m 떨어진 곳에 탁자식지석묘가 1기, 이곳에서 북쪽으로 10여m 떨어진 곳에 452×366×270cm 크기의 기반식지석묘가 자리한다. 지석은 크고 작은 14개의 할석을 이용해 타원형으로 고였다. 특히 대형군집을 바라볼 수 있는 인근에 탁자식과 상징지석묘가 함께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나주 영평리 복룡 지석묘는 1기만 확인되는데 조사 시 석관묘와 이격하여 독립되어 있는

5) 상징지석묘는 상석 두께 2m 이상인 괴석형 상석, 상석 두께 1.5~2m 정도인 잘 정제된 타원형 상석, 상석 두께 1~1.5m의 직육면체형 상석들이 해당하고, 대형 지석이나 주형지석을 한 기반식지석묘와 대형 탁자식도 포함될 수 있다(이영문 2011:132~133).

6) 나주 운봉리 백운 46호는 묘역시설만 확인되었는데 규모와 지석의 간격이 2m 이상인 점으로 보아 대형지석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포함시켰다.

양상이다.

군집 내 중앙입지는 상징지석묘가 지석묘 군집에서 중앙에 자리하는 것으로, 발굴된 것은 목포 석현동 도룡이 있다. 이 유적은 구릉정상부에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정상부에는 3호 지석묘만 축조된다. 3호는 지석 4매가 고이고 있으며, 구획석이 돌아간다. 일반적인 지석묘와 규모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입지에 따라 상징적인 지석묘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표조사 유적으로는 영광 성산리와 화순 벽송리가 대표적이다. 벽송리는 기반식이고, 성산리는 주형지석묘의 형태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집 내 외곽입지는 열상배치와 연결되는 것과 열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구분된다. 열상 내 배치는 광주 매월동 나군과 고창 금평리 지석묘가 있다. 열상 외 배치는 나주 운봉리 백운 지석묘가 있다. 광주 매월동 지석묘 나군은 구릉정상부에 위치한다. 1호는 지석을 3매 고인 기반식지석묘로 보다 높은 곳에 자리한다. 규모는 $320 \times 220 \times 160\text{cm}$ 로 비교적 작은 상징지석묘에 속하지만 군집에서 확인된 지석묘의 규모에 비해 1.5배 내지 2배가 큰 편이다. 나주 운봉리 백운 지석묘는 계곡평지에 49기의 지석묘가 열상 또는 군상을 이루고 있다. 46호는 묘역시설과 지석만 확인되는데 지석의 범위가 2m 이상인 점으로 보아 대형상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열상 배치에서 방향을 달리하여 외곽에 배치되어 있으며, 서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는 상징지석묘의 요소를 가진 상석도 확인된다.

이외에 군집 내에서 다수의 상징지석묘가 존재하고 있다. 나주 풍산리 도래 가군과 화순 대신리 지동 지석묘군 등이 대표적이다. 두 유적은 다른 양상인데 나주 풍산리 도래 가군은 입지와 규모에서 다른 지석묘와 차이를 보이지만 화순 대신리 지동은 큰 차이가 없다. 나주 풍산리 도래 가군은 7기가 조사되었는데 3기에서 상징지석묘적 요소가 나타난다. 1호, 4호, 7호는 지석묘 두께가 모두 200cm 내외로 열상으로 확인된다. 매장시설이 확인된 지석묘는 보다 작은 규모이며, 상징지석묘에 비해 낮은 곳에 축조된다. 지석은 비교적 큰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7호의 경우 9매의 지석을 구획석을 따라 타원형으로 둘렀으며, 1매는 중앙에 배치하였다.

대형 기반식지석묘는 무덤의 기능을 가진 상석과 뚜렷히 구분되는 상징지석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특징은 군집양상에 있어 단독으로 확인되기도 하지만 묘역의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며, 군집 내 중앙에 배치되기도 한다. 모든 입지지형에서 확인되나 군집 내 다른 지석묘 보다 높은 지형에 있다. 단독으로 확인된 상징지석묘는 구릉과 평지에서 확인되지만 비교적 주변지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살펴본 탁자식·주형지석묘, 대형 기반식지석묘는 무덤으로 사용된 것도 있지만 주로 매장시설이 없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군집내에서 위치나 입지로 보아 묘구를 표시하는 기념물로서 의례공간이나 가매장시설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으로 입지하는 경우에는 집단간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여러 지역집단간의 공동 기념물로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영문,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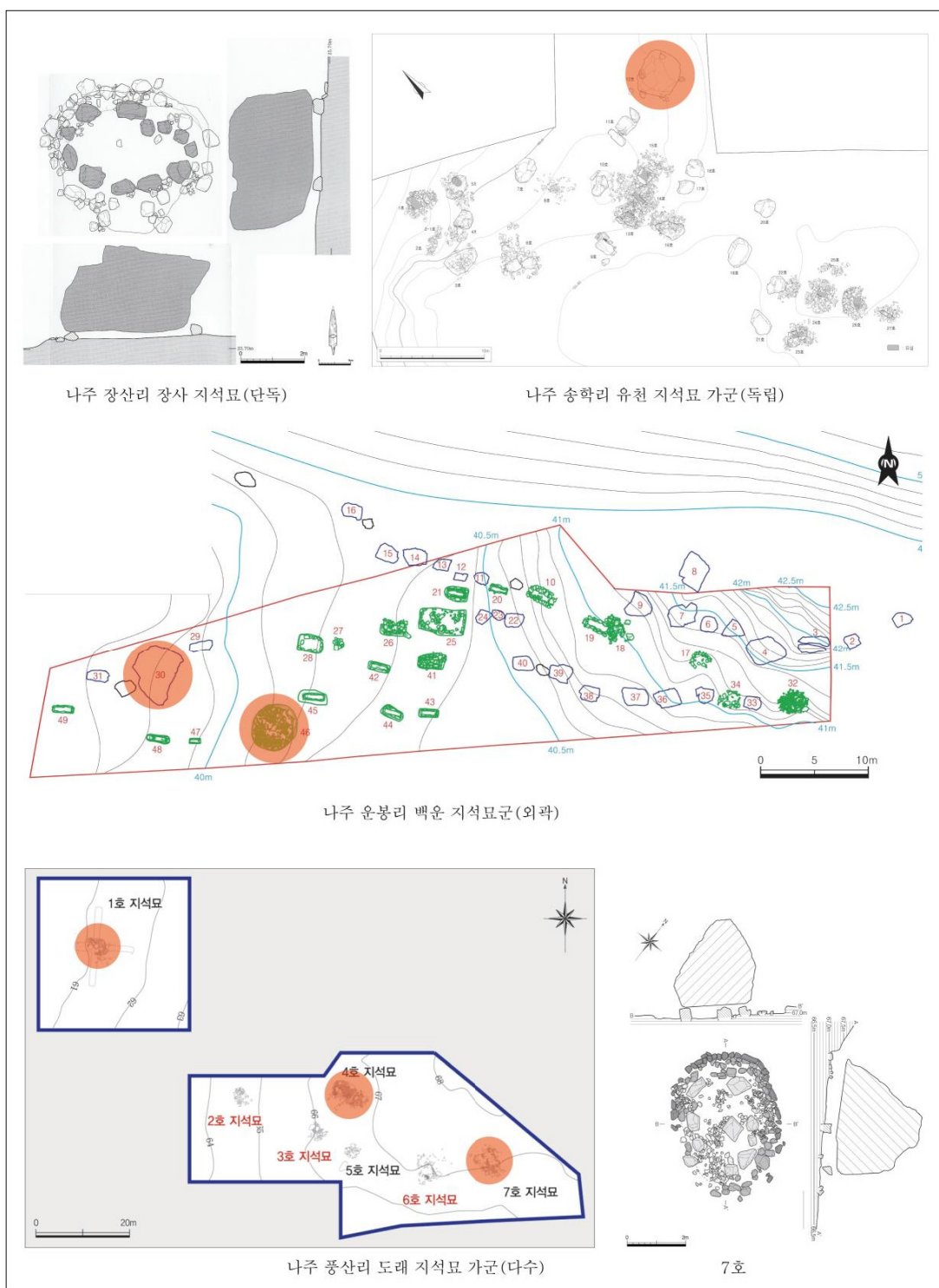


圖 6. 영산강유역권 상징지석묘 군집양상

2. 지석묘 출토유물

영산강유역권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201점⁷⁾으로 남해안지역이나 보성강유역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량을 보인다. 석축이 107점으로 많은 수량을 보이나 대부분이 묘역시설이나 주변에서 출토된 것이다. 다음으로 삼각형석도 22점, 석검 21점, 옥류 15점이다. 유물은 발굴된 유적 수에 차이는 있지만 중·하류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석묘의 대표적인 부장유물인 석검은 일단병식 9점, 유경식 12점이 출토되었다. 함평 덕림리 백양 지석묘군을 제외하고는 각 유적에서 1점씩만 출토된다. 유경식석검 중 세장한 경부를 가진 나주랑동과 운곡동 안성 출토품은 각형토기와 관련된 석검으로 서해안을 통한 교류(이영문 1990:132)를 상정할 수 있는데, 아직 뚜렷한 유적이나 문화요소는 없다. 함평 덕림리 백양 12호 출토 일단병식 석검은 병부가 의기화 된 석검인데 이는 여수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지역의 특징적인 형식으로 문화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석축은 28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묘역시설이나 묘실 주변에서 수습된 것이다. 석축은 광주 덕림동 덕림 4호의 묘실 바닥에서 출토된 이단경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단경식이다. 이단경식석축이 출토된다고 해서 모두 전기로 올려볼 수는 없지만 이 영산강유역권 지석묘에서 부장유물로 이단경식석축이 출토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외에 석기로는 석도와 석부, 방추차 등이 있으며, 대부분 묘역시설이나 외부에서 출토되고 있다. 석도는 총 22점으로 영암 서호리 서소호 가군 A-1호 묘역에서 출토된 주형의 반월형석도를 제외하면 모두 송국리문화와 관련된 삼각형석도이다. 석부는 합인석부, 편인석부, 유구석부가 있다.

表 6. 영산강유역권 지석묘 출토유물

유물구분		권역구분	상류	중·하류	서해연안			서해남부	계
					서북부	서부	서부도서		
유적수			39	48	22	12		3	124
석검	일단병식		1	7					9
	유경식		3	7	1	1			12
석축	이단경식		1						1
	일단경식		40	56	2	6		2	106
석도	반월형석도			1					1
	삼각형석도		1	14	1	4		1	21
석부	합인석부		1	4	1		1	1	8
	편인석부		2	7					9
	유구석부			4		1			5
기타	방추차		2	2					4

7) 출토유물의 수량은 지석묘 내부 또는 매장시설 주변에서 확인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석묘와 떨어져 지표수습된 유물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되는 유물의 수는 이보다 더 많다.

유물구분		권역구분	상류	중·하류	서해연안			서해남부	계
					서북부	서부	서부도서		
청동기	세형동검			2					2
	청동방울			1					
옥	곡옥			1		1			2
	관옥	1		10					11
	환옥			2					2
토기류	채문토기			1					1
	적색마연			2					2
	흑색마연			1					1
	점토대	3		3	1				7
계			52	122	5	13	1	4	197

청동기는 세형동검과 청동방울이 있다. 세형동검은 영암 장천리 1호와 나주 운곡동 안성 나군 1호 주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청동방울은 영암 서호리 소서호 가군 6호의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고흥 안치 지석묘 3호의 묘역시설에서도 출토된 바가 있다. 청동방울과 관련해서 동이전(東夷傳)의 한전(韓傳)의 기록을 참고하면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방울이 후대유물일 지라도 지석묘가 축조된 이후에도 이곳이 그만큼 신성시되었으며, 의례와 같은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옥은 곡옥과 관옥, 소형의 환옥이 있다. 영암 망산리 5호에서 곡옥 1점과 관옥 9점이 공반되었으며, 무안 월암리에서는 곡옥이 1점 출토되었다. 함평 덕림리 백양 19호에서는 소형의 환옥이 2점 출토되었으며, 화순 용강리 3호와 나주 동수동 동령 바군 1호에서는 관옥이 각 1점씩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대부분 묘역시설이나 주변에서 편으로 확인된다. 채문토기는 나주 회진리 사직에서 1개체분이 출토된 바 있으며, 점토대토기는 고창 죽림리 재해 2433호 주변에서 수습되었다. 영암 엄길리 5호에서는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를 지석 옆에 매납하였다. 함평 덕림리 백양 24호에서 삼각점토대편과 적색마연토기가 공반되었다. 이외에 장성 삼태리 유적에서는 묘실 바닥의 동쪽에 서 구순각목문토기편이 수습되어 주목된다. 이 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11기가 함께 조사되었으며, 가장 높은 구릉정상부에 지석묘 1기가 단독으로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른시기의 지석묘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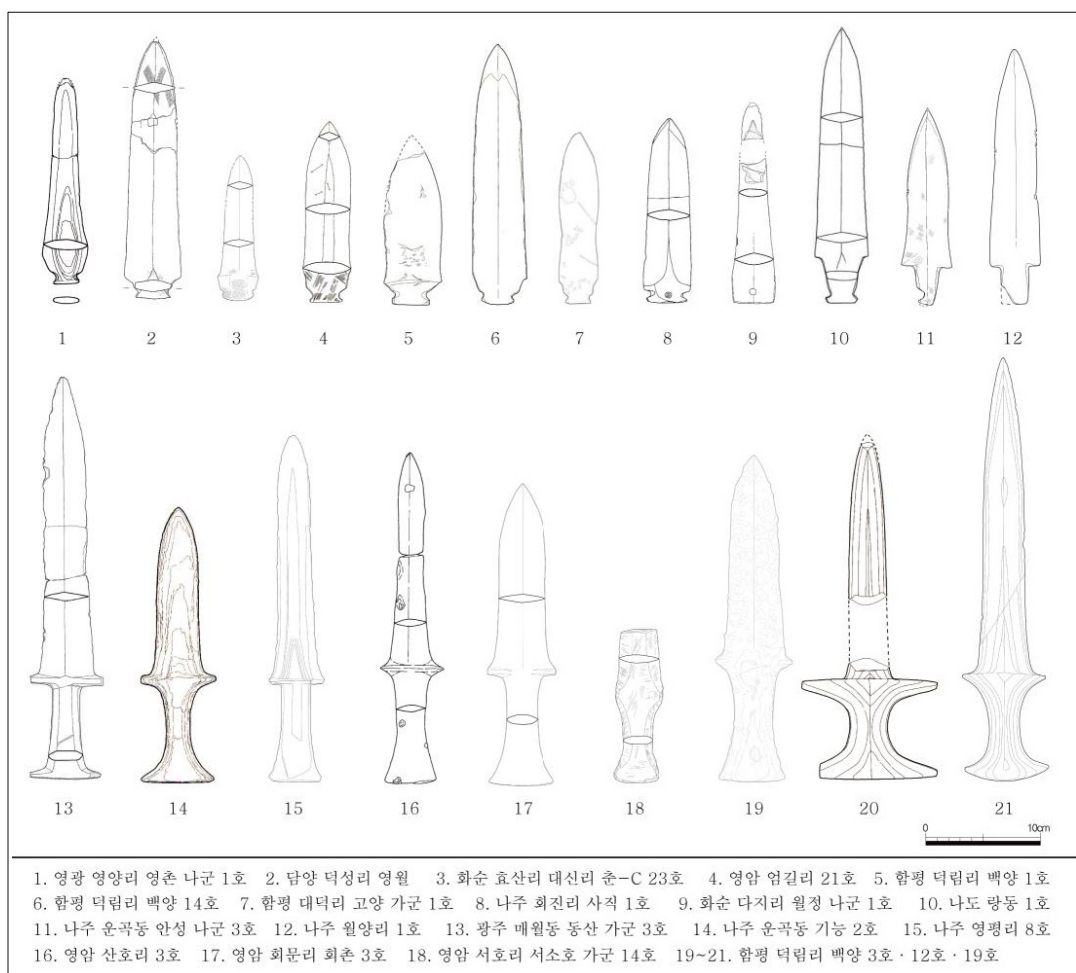


圖 7. 영산강유역권 지석묘 출토 마제석검

V. 맺음말

이상으로 영산강유역권 지식묘의 분포양상과 함께 특징적인 지식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식묘의 분포는 최근 이루어진 지표조사 결과와 기존 문헌자료를 토대로 총 정리하고자 하였다. 영산강유역권의 범위는 본류에만 한정하지 않고, 같은 지식묘 문화를 가진 고창과 영광지역을 포함하였으며, 본 발표의 내용상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영산강 수계를 따라 진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안도서지역과 해남지역도 함께 살펴보았다.

지식묘의 분포양상은 9,600기 이상이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분포현황과 분포수에 따른 군집양상을 살핀 결과 초대군집이나 대군집을 중심으로 중·소군집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상은 일정한 지역에 더욱 밀집되어 있는데, 그 중심은 나주·다시·왕곡 일대이다.

지식묘의 형식과 특징은 기존연구성과를 참고하여 호남지역의 특징적인 지식묘인 탁자식지식묘와 주형지식묘, 대형 기반식지식묘(상징지식묘)에 대해 입지와 군집, 배치상태 등을 살폈다. 그 특징을 요약 하면 영산강유역권 지식묘는 다양한 형식들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지식묘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석곽형, 석관형, 토광형 등 매장시설만 확인되는 경우가 더 많다. 탁자식지식묘와 주형지식묘는 그 분포범위가 서부도서지역인 신안과 남부지역인 해남을 포함해 영산강 상류까지 미치고 있다. 탁자식은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상석이 두꺼워지고, 석실의 높이는 낮아지고 있다. 주형지식묘는 지식의 형태와 높이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탁자식과 동일한 분포권을 하고 있으며, 남쪽이나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상석이 두껍고, 지식의 높이도 낮아지고 있어 탁자식의 이동·전파와 형식변화를 함께 하고 있는 듯하다.

유물은 석기류와 청동기, 토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지만 타지역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석검의 형식으로 보아 서해안과 남해안지역과의 교류를 상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이른시기의 석촉이나 토기편이 묘실 내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지식묘의 다양한 구조와 형식, 축조배경이나 사회문제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못하고, 최근 자료를 집성하고 정리하는데 그쳤다. 이는 앞으로 나아갈 지식묘 연구의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강진표, 2016, 『전남지역 묘역지석묘의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정, 2013,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석현, 2015, 『동북아시아 대형 지석묘의 성격』,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기, 1997, 「고창지역 주형지석을 갖는 지석묘에 대하여」, 『호남고고학보』 5집.
- 김정배, 1996, 「韓國과 遼東半島의 支石墓」, 『先史와 古代』 7, 한국고고학회.
- 김진환, 2012, 「한국 도서지역 지석묘의 성격」,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재명, 2011, 『영산강유역의 지석묘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준호, 2011, 「청동기시대 전쟁의 성격」, 『고고학』 10.
- 유태용, 2007, 「호남지역 석주식 지석묘의 구조적 성격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28호.
- 이동희, 2012, 「전남·영남지역 청동기시대 묘제와 지역성」, 『고조선단군학』 29집.
- 이영문, 1987, 「전남지방의 지석묘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문, 1990, 「호남지방 지석묘 출토유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고학보』 25.
- 이영문, 1994, 「지석묘의 기능적 성격에 대한 검토」, 『배종무총장퇴임기념논총』.
- 이영문, 1996, 「유적 분포로 본 문화영역과 생활권」, 『도서문화』 14.
- 이영문, 1997, 「전남지방 출토 마제석검에 관한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24.
-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 이영문, 2004, 「영산강유역 지석묘 문화의 성격」, 『문화사학』 21호.
- 이영문, 2011, 「호남지역 지석묘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몇가지 문제」, 『한국청동기학보』 8호.
- 이용조·하문식, 1989, 「한국 고인골의 다른 유형에 관한 연구-제단고인돌 형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63.
- 조진선, 1997, 「지석묘의 입지와 장축방향 선정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 6.
- 조진선, 1999, 「호남지역 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 9.
- 조진선, 2004, 「전남지역 지석묘의 연구현황과 형식변천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43호.
- 최성훈, 2015, 「전남 동남부지역 지석묘사회 변천과정」, 『한국청동기학보』 17.
- 平郡達哉, 2004, 『전남지역 지석묘 사회 전개과정에 대한 일고찰』,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문식, 1997, 『동북아세아 고인돌 문화의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문식, 2017, 「분묘의 형태와 구조」, 『청동기시대 고고학 4-분묘와 의례』,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 하인수, 1989, 「거창 내오리 지석묘 지표조사 보고」, 『가야통신』 18.
- 황재훈, 2006, 「전남지역 지석묘의 형식분류와 변천」, 『한국상고사학보』 53.